

불 켜진 에너지밸리... 환해진 호남 신성장동력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순조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에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밸리'에 이주하기로 약속한 기업 중 39%가 이미 용지 계약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흔히 성과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업유치는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에너지밸리는 이주 작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밸리는 오는 2020년까지 500개 에너지 관련기업을 유치해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영국의 사이언스파크 같은 세계적인 에너지분야 특화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다.

에너지밸리의 성공은 기업 유치다. 연구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외국기업, 대기업 등이 이곳에 입주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지역 발전과

투자협약 체결 105개 기업 중

41곳 용지 계약 끝 입주 채비

에너지밸리 센터도 연내 준공

2000억 출연 中企 육성도 박차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총 105개의 기업과 에너지밸리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나주에 534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3853명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이들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투자를 약속한 기업 105곳은 현재 용지 계약을 마친 곳은 41곳에 달한다. 또 64곳도 용지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105개 업체 중 ▲연구소 기업 1곳 ▲스타트업 4곳 ▲중소기업 90곳 ▲중견기업 2곳 ▲외국기업 3곳 ▲대기업 5곳 등이다.

에너지밸리 조성이 완성되면 나주는 세계적인 에너지분야 특화도시가 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에너지밸리 유치 업체 중 대기업은 5곳, 중견·중소기업 68곳, 외국계 기업 3개사, 연구소기업 1개 등이며 에너지 신산업 관련업체가 41개사로 55%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 관련 업체가 대거 입주함에 따라 에너지밸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조성하고 있는 '에너지밸리'에 이주하기로 약속한 기업 중 39%가 이미 용지 계약을 마치는 등 한전 이전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나주의 한전 사옥 전경과 한전의 외국기업 투자유치 업무협약(위 왼쪽)과 에너지밸리 정책협의회 모습. <한전 제공>

지 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기반이 마련됐다.

한전은 또 오는 2016년 준공 목표로 에너지밸리 센터도 지난 9월 착공,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 200억원을 들여 연면적 754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서는 에너지밸리센터는 연구소 설치 기업의 창업보육센터와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중소기업 육성 작업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전은 중소기업 육성펀드 2000억원을 출연해 이전·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에너지밸리에서 꿈을 키울 인재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한전은 지역 산학연 R&D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빛가람국제발명대전을 개최하며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박람회도 열 계획이다.

첨단에너지 특화사업도 진행된다. 한전은 에너지 산업에 강점이 있는 빛가람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그리드·에너지저장장치(ESS)·마이크로그리드·신재생에너지·전기차 등 첨단에너지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전이 펼친 미아방지 캠페인 모습.

2005년부터 61만여명 참여 10만회 넘는 봉사

사회 공헌 활동 활발

러브펀드 등 446억원 기금 모아

저소득층 채납 전기요금 지원도

나주에 동지를 둔 한전의 사회 공헌 활동도 주목 받고 있다. 한전은 '내일을 꿈꾸는 창조적 희망 에너지 기업'을 목표로 대규모 사회봉사단을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1만5276명이 참여해 10만957회의 봉사활동을 했고, 매칭그랜트와 러브펀드 등을 통해 446억7800만원의 기금을 모았다.

저소득층의 채납 전기요금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3년부터 아름다운재단 등과 함께 25억 7000만원을 지원해 사정이 딱한 사람들의 전기 요금 걱정을 덜어줬다.

또 국내외 필리핀, 멕시코, 요르단, 베트남, 중국, 농골 등지의 저소득층 602명의 개인 수술을 지원했고 임직원 8138명이 각막기증 서약을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까지 13억5000만원을 들여 협동조합 25곳과

사회적기업 5곳의 신규고용을 도왔고 크라우드펀딩 등을 통해 3억원의 사업자금을 모아 지원했다.

소상공인 창업을 위해서도 5억6800만원을 지원했고, 저소득층 근로자 긴급 구호자금 3000만원을 모아 현재까지 900만원을 지원했다.

어린이 실종·유괴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전국 154개 사업소에서 1378명의 직원이 미아 예방 종이팔찌 21만개를 나눠줬고, 집 내장형 스마트 밴드 2만5000개도 지원했다. 실종아동찾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매일 3명의 실종아동 사진을 전기요금 청구서에 게재해 지난 1999년부터 109명의 아동이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왔다.

전력꿈나무 장학금을 운영해 광주·전남지역 117명의 학생이 984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밖에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과 대학생들을 연계해주는 학습지원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에너지교육인 빛가라클래스 등을 운영하고 있고 전기공학 전공 소의 계층 대학생에게 장학금 26억원도 지원했다. 대학생들이 해외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다. 에너지밸리 우수 인재 유치 등을 위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지에서 120명의 대학생이 해외 봉사 활동을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창사 64주년

대한민국의 전기가 뚜뚜뚜뚜 능능능능합니다

한전KDN의 ICT기술력으로 더 안전하고 더 스마트해집니다

전력과 ICT의 만남으로 에너지ICT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린에너지 세상의 리더 한전KDN

고품질의 전기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에서 송변전, 배전, 판매까지 전력계통은 물론,

창의와 융합으로 스마트그리드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Kdn 한전KDN